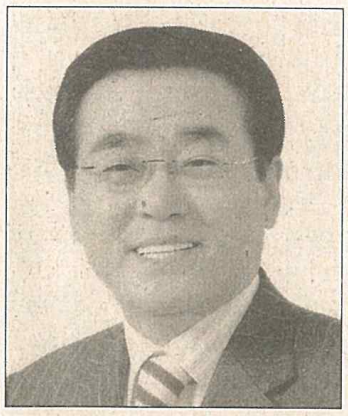
시정신문 5면

'공부하는 의회' 정책대안 파트너로 재탄생



유 군 성
강북구의회 의장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강북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강북구의회는 제6대 의회가 새로이 출범해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는 강북구의회' 구현을 목표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개원 당시 서울시 자치구 의회 중 유일하게 4당 체제로 구성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14명의 의원들 모두 여야를 떠나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원 구성을 마무리해 대과 없이 의회가 운영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회는 민생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 활동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실생활에 직결된 각종 조례를 제정하고 정비해 다양한 구민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구민에게 불편부당한 사례를 발굴해 행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34만 강북구민의 의지를 의회에 모아 행정부를 견제하면서도,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닌 정책 대안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세미나, 비교시찰 등을 통해 '공부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잘못된 제도는 고치고 잘하고 있는 일은 더욱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 대안제시에도 노력할 것을 구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대내외적인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에서도 저희 강북구의회 의원 14명 모두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었을 당시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일이관지(一以貫之)' 하는 자세로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민일보 11면

"무상급식지원 등 민생 의정 주력"

구본승 강북구의원 "저소득주민 이용요금 감면확대 조례개정 박차"

"상반기 중 다른 의원들과 협의하여 무상급식지원조례, 주민참여자치 조례를 공동 발의하고, 저소득주민 이용요금 감면확대 관련 조례를 다수 개정할 것이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는 어르신 건강마당을 설치하는 등 복지와 민생을 챙기겠다"

서울 강북구의회 구본승(사진) 구의원(미아·송중·번제3)이 9일 6.2지방선거 당선 후 6개월간 의정활동 평가와 함께 이같은 2011년 계획을 내놨다.



구본승 구의원은 "지난 6개월 동안 배움의 연속이었으며 의정활동의 주된 방향은 사회복지, 일자리 확대였다"며 "최대 성과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한 것"이라며 2010년 자신의 의정활동을 평가했다.

구본승 구의원의 주요 활동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 대표발의 이외에도 영구임대주택 입주가족 퇴거요건 완화 촉구 건의안 공동발의, 강북구 일자리창출 주민간담회 개최, 저소득 틈새계층 일자리 창출비등 일자리예산 1억5000여만원 증액편성 실현, 장애인 및 교통약자 보행로 실태조사 진행, 금·토요일 초등학생 하굣길 안전지킴이 배치 실현 등 일자리와 사회복지 관련 활동이 많았다.

구본승 구의원은 2011년 의정활동 계획 관련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민생을 챙기는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구민들과의 간담회를 다수 개최하고 상반기 중 민관협력으로 복지강북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하며 강북구 구정의정 인터넷 자료관을 개설해 의정활동으로 확보한 정보를 주민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